

무안군, 도로개설 '특혜의혹' 에 시끌

1972년 준공된 무안 버스터미널 이전 주민 숙원사업

석연찮은 이유로 도시계획 변경...이전 부지에 도로 관통

사실상 이전 '좌초'... "땅값만 올랐다" 비판 여론 일어



1972년에 준공된 무안 버스터미널 오래 되고 비좁아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이 지역 유지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 도로를 개설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도로 개설로 인해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노후된 버스터미널 이전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무안읍 황토클리닉타운 인근에 공사비 4억원을 들여 폭 10m, 길이 283m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난 3월13

일 착공, 지난달 12일 완공했다. 군은 도로 개설을 위해 사유지 8필지 2013㎡를 매입했으며, 이를 위한 보상비는 총 5억4292만460원에 이른다.

이번에 신설된 도로가 무안 버스터미널 이전 부지를 가로 질러 개설되면서 터미널 이전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해 지거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의 무안 버스터미널은 지난 1972년 3월12일 준공돼 건물이 노

후되고 비좁아 오래 전부터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무안 버스터미널 측은 1990년대 초반 무안군에 황토클리닉타운 인근 부지에 버스터미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군에 알렸다.

무안군도 이를 위해 지난 1995년 자연녹지인 터미널 이전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다. 또 터미널 주변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신설에 따른 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했다.

하지만 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2017년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통해 터미널 주변 도로를 50m 옆으로 옮겨 이전부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시켰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터미널 이전부지는 내년이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이전 계획이 사라진다"면서 "이에 따라 맞는 편 도로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터미널 이전 부지 소유주이자 현 무안버스터미널 대표인 박모씨는 "도로가 개설됐어도 기존 터미널에 비하면 면적이 넓어 새 터미

널 부지로는 충분하다"면서 "이전하려면 최소 3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타 자치단체처럼 군에서 새 터미널을 지어 위탁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은 제가 요청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나 정작 버스터미널을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도로가 개설돼 땅 주인들만 큰 이득을 봤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만큼 터미널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땅값만 올려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 부동산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13년 평당(3.3㎡) 100만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인근 땅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린다는 소식에 올해 초 28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역에서 일부 공무원들까지 차명으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다.

무안군 지역개발과는 "황토클리닉타운 진입도로는 당시 무안읍의 요청으로 건설됐다"면서 "도로 위치 변경은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전적으로 무안군에서 결정했고 안전 문제도 무안경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중학교 학생들 집단 식중독 증세...단축수업

경북 상주 S중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학교 측이 휴교에 이어 오는 11일까지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9일 이 학교와 상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전교생 350여명이 지난 4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후 20여명이 5~7일 사흘간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일부 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날 학교에서 급식한 교직원들은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5일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니 급식을 먹은 학생 가운데 25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6일 휴업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수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주시보건소는 "급식 때 먹은 무와 미나리 등 생야채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역학당국은 학생들의 가검물과 조리도구, 음식물 등을 수거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다.

고양이 인덕선 건드려 불...3명 부상·3마리 폐사

주인이 외출한 다세대주택 내부에서 고양이가 주방의 인덕선을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17분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에 살던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이 난 집 내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 발생 당시 집주인은 외출한 상태로 고양이만 3마리 있었는데 화재로 모두 폐사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인덕선 스위치를 고양이가 건드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모, 3년 전 유형업소 종업원 성폭행의혹 피소

가수 김건모씨가 3년 전 유형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9일 검찰에 고소당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씨의 강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유형주점에서 종업원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떠한 대가나 사과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고통의 시간을 지낸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김씨의 사실 인정과 솔직한 사과"라며 "김씨 측 회사에도 이 점을 전달했지만 '고소할 테면 해바라' 반응을 보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두 사람은 내년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대전 단독주택서 불...50대 공무원 숨져

8일 오전 9시 55분경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불은 집 내부 30.5㎡ 및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216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대전시 공무원 A씨(50)가 숨졌다.

불이 주택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75명의 인원과 18대 장비를 동원, 58분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려 31년'...공군 1전비 189대대, 11만시간 무사고 기록

1988년 6월~2019년 9월10일까지 31년3개월 걸쳐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9일 오전 10시 강당에서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제189비행교육대대의 11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축하하는 비행안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189대대의 11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은 1988년 6월부터 지난 9월10일까지 31년3개월에 걸쳐 이룩한 성과다.

이 기간 189대대가 비행한 거리는 약 8910만km에 이른다. 이는 지구 2227바퀴, 지구에서 달까지

116회 왕복한 것과 맞먹는 거리다.

189대대는 이날 시상식에서 공군참모총장 부대표의 영예를 안았다.

이영철 소령과 임지용 소령(진), 김학 항공기정비대대 원사가 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 13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신욱철 소장(공중전투사령관)은 "이번 11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189대대가 최상의 대비태세 확



립과 정에 전투준중사 양성의 주 임무에 매진하며 수립한 뜻깊은 기록"이라며 "특히 국산훈련기 T-50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학

생조중사의 단독비행과 같은 도전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달성한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